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중단’ 배경·과장

“30개월 미만 고수 협상전 부터 포기”

강기갑의원, 농림부 대외비 문건 공개

‘여론 돌리기’ 교육책...부실협상 시인?

협상 결과와 달라 정부 대처에 주목

美 재협상 수용 가능성 낮아 마찰 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급기야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약속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으면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곧바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부의 방침이 한미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여론 돌리기 교육책 = 정운천 장관은 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전북도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정 장관의 선언을 암시했다.

◇수입중단 정부 권한 밖, 주체는 OIE = 그러나 정 장관 스스로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부연했듯이, 이 같은 엄격 원칙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합의문 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곧바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를 낮출 경우에만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반 국민 역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으로, ‘굴욕 협상’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정부 “해결방법 있을 것” = 이날 청문회에서 정세균 의원은 “한미 협상 합의 내용에 없는 것을 대통령, 여당, 장관이 말하는 것은 협상 파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우병’ 논란 파동을 몰고 온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청문회’가 열린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농민당 강기갑 의원이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 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오겠다는 것이 합의조건이고,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분쟁에 따른 협의는 양국 간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 장관 등 정부 측은 광우병 발병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조항을 들고 있다. GATT 20조 b항에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마찰, 대외신인도 하락 = 정부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지만, 이 특단의 결정은 이번엔 타결된 수입조건과 명백히 어긋난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마찰 소지를

없애려면 새 수입조건이 고시와 함께 오는 15일께 시행되기 전 재협상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고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재협상은 미국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 우리 정부도 이미 서명이 끝난 이번 위생조건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강기갑 의원은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특정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정운천 농림수산물 장관의 결재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은 2가지 중요 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사안 등에 대한 정부의 협상지침을 담고 있으며, 중요 쟁점사안은 장관 훈령을 통해,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중요 쟁점 사안인 월령제한 문제의 경우 농림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의 사료조치 강화와 ‘이행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정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월령제한 해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RM 제거 범위에 대해 정부는 예

초부터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 제거’라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광우병 추가 발생시 우선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한 뒤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라면 계속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그 이전 출생한 소라면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이 역시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SRM 검출시 해당 작업장의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출입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등 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실제 협상에서는 이런 방침이 모두 후퇴해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장 승인문제의 경우 당초 정부는 당분간 현지점검 후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측이 갖고 이후에는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쇠고기 청문회 공방

“굴욕협상” “안이한 정부” 한목소리 질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7일 ‘쇠고기 청문회’를 갖고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굴욕 협상’, ‘퍼주기’로 규정, 협상의 위험 논란까지 제기하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권의 집중포화를 무책입한 정치공세로 규정, ‘광우병 과담’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후속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검역중단 포기 논란 =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국제법상 (검역)권리를 포기하고 헌법상 정부의 국민보호의무를 포기한 이번 협상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

다”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이번 협상은 위헌인 만큼, 협상 무효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제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출신의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도 “합의문에 30개월 이상 빼어난 쇠고기의 수입 허용 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 ‘공표’ 시점이 아닌 ‘발효’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쇠고기 안전성 공방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미국 소비자들의 쇠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은 20개월 이하의 어린 소”라면서 “예일 대학

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최소한 5%는 오진된 인간 광우병 환자라는 조사가 있으며, 피츠버그 외대 보고서는 오진 비율을 13%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서 시작된 먹거리 안전 논쟁은 큰 사회적 후유증만 남겼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OTE 기준을 지나치게 급과속조시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전하지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협상 논란 =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수입 위

생조건 등의 합의 사안은 WTO 제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고시 발효 연기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치권에서 재협상(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실제로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하고 고시될 때까지 20여 일 간 의견수렴기간을 둔 것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이의제기 및 수정보완하려는 이유 아니냐”고 지적, 야권의 전면 재협상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 재협상·수정 없다”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재협상하거나 합의문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무역 어젠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재협상 및 일부 합의문의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슈워브 대표는 기존 합의문 내용을

보면 광우병 위험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이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움직임과 관련, “미국에서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소비한다고 (일부 한국인들이) 주장하는데, 미국은 미국인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한국의 반대어론은 극단적으로 감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부정확한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로 이어지는 KB *b 부동산신탁의 성공 서비스! 한결 같은 믿음으로 KB부동산신탁에게 맡겨 주신 고객님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 신탁의 신뢰성과 공신력으로 끝없는 성장을 거듭해 온 KB부동산신탁이 그 평성 그대로 빛고를 광주에 지점을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